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

- 문봉주 대사의 '새벽형 크리스천'중에서

이 글은 목회와 신학 자료실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목회와 신학 - <http://www.durano.com/moksin/default.asp>]

하루는 뉴질랜드인 여비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게 달려 왔다. 어느 거지가 대사님을 찾는다는 거였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하더라도 약속을 미리 잡아 놓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다. 게다가 거지라니! 그런데 여비서 말로는 내 이름을 아는 걸로 봐서 보통 거지가 아닐 것 같아 전한다는 것이다. 보통 거지라면 내 이름을 대고 여기까지 찾아 들어오겠는가, 나는 심상치 않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모셔 오라고 했다.

얼마나 그렇게 돌아다녔던지, 거지의 행색이 가관이 아니었다. 억지로 넥타이를 하나 댔지만 온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말도 못하게 풍겨 나오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이랬다.

교회마다 찾아가서 일주일 정도 기도할 곳을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가는 데마다 쫓겨났다는 것이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 돈을 조금 주고 따라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다녀봐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웰링턴에 있는 문 대사님을 찾아가 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아! 그 교회!’

머리에 스쳐 가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방언 은사를 받고 ‘체험하는 성경의 맥’을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눈물로 말씀을 전했던 한 교회였다. 나는 돈을 봉투에 담아 드리면서 여행 경비에 보태라고 말했다. 이 분은 말할 수 없이 고마워하더니 부끄러움도 모르고 내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팬티 안에 돈을 감추기 시작했다. 바지를 내리자 역한 냄새가 더 코를 찔렀다.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게 돈을 꼬깃꼬깃해서 감추더니 전화할 데가 있다고 했다. 이리 와서 전화를 걸라고 하고 접견실의 대사 자리를 비켜 주었다.

‘내가 주릴 때 먹여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 거지가 전화를 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내 머릿속에는 오직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성경 구절들이 계속 맴돌았다.

‘아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 분이 바로...’

나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구걸하는 자들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친 내 과거를 속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예전에 구걸하는 사람들을 늘 마음속으로 함부로 여기곤 했다.

‘게을러서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길에서 손이나 벌리고 있다니...’

‘저 사람들 뒤에 광패가 있다지, 내가 광패 먹여 살릴 일 있어.’

당연히 그들에게 돈을 준 적도 없거니와 봐도 못 본 척 지나가기 바빴다. 그들의 삶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내 행동과 판단에 대해서 그다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나는 지극한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행동했으므로 내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바리새인들 같은 '위선자'나 '강박한 자'와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성령의 감화를 받고 보니 살인을 저지르거나 강도짓을 해야만 마음이 강박한 게 아니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만이 심령이 무딘 자들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저들 뒤에 강패가 있으니 저들을 도와주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외교관으로 제대로 된 집을 갖추고 사는 나와 저 구걸하는 자들을 똑같이 긍휼히 여기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13)" 예수님은 손발이 필요하셔서 바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신다. '봉주야, 너가 내 손발이 되어 다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구걸하는 자'들을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물질이 흘러넘치고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주전자에서 물이 끓으면 김이 뚜껑을 밀어내고 쏟아져 나오듯, 그렇게 주의 사랑이 내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와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흐르게 하시는 것이다.

- 문봉주 대사의 '새벽형 크리스천' 중에서